

2023. 3. 27.(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3월 2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민자구간)

(재정구간)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7매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2133-8060
민자사업팀장	황원근	2133-8071
담 당 자	김정식	2133-8073
광역도로계획팀장	원영구	2133-8086
담 당 자	정용훈	2133-8082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화...올 하반기 착공해 2028년 완공

- 27일(월), 서울시-동서울지하도로(주),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
- 월릉교~대치동 구간 지하 총 12.2km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도로 건설
- 지하도로 개통 후 월릉교~대치동 통행시간 약 20분 단축...동북·동남권 균형발전 견인 기대

서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대치동(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까지 총 12.2km의 지하화 사업이 올 하반기 중 착공된다.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주)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단계 사업(월릉~대치 12.2km, 왕복 4차로)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월릉~삼성)의 시행자로 결정하고, 27일(월)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시는 2015년 8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무협상 등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는 대표회사인 (주)대우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등 총 12개사가 출자해 설립됐다.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월릉교~대치동(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구간에 대심도 4차로 지하도로(터널)을 설치하고,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 하는 사업이다. 민자사업 구간과 재정사업 구간으로 나눠 건설이 추진된다.

-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와 영동대로 구간의 교통여건과 시의 재정여건,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단계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1단계로 교통개선을 위한 대심도 지하도로(월릉~대치, 12.2km)를 2028년까지 건설하고, 이후 2단계로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월계~송정, 11.5km)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
- 1단계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중랑천 및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연장 10.1km의 왕복 4차로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다. (’15.4월 불변가 기준 민간 6,378억 원, 시비 3,496억 원의 총사업비 9,874억 원)
- 재정사업은 영동대교 남단부터 대치동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까지 연장 2.1km 구간으로 시비 3,348억 원이 투입된다.

□ 이에 민자사업 구간은 월릉교~영동대교 남단까지 대심도 4차로, 연장 10.1km의 지하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존 동부간선도로 월릉IC와 군자IC를 이용해 진출입이 가능하며, 영동대로에 삼성IC, 도산대로에 청담IC가 신설된다.
 - 진출입 IC 4개소에는 지하도로 내 공기를 정화해 깨끗한 공기만 배출하는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해 주변 환경피해가 없도록 계획했다.
- 또한,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 ‘재정사업’ 구간(삼성~대치)도 지난 2월에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으며, 상반기 중 착공해 민자사업 구간과 함께 2028년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동부간선지하도로가 완공되면 석관동(월릉교)에서 대치동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7만여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완료시,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은 최대 43%(일 15만5,100대→일 8만7,517대, 일 6만7,583대 감소 * 장안교~중랑교 구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되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파급을 동북권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1단계 사업(월릉~대치, 12.2km) 완료 후 2단계로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월계~송정, 11.5km)을 지하화해 단거리 지역교통을 연결하고, 중랑천 생태복원을 통해 친환경 수변공

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노원구 하계동~성동구 송정동, 11.5km, 왕복 4차로, 전차중, 1조 6,376억 원, '29년 이후 착수)

<성남강남 고속도로 연결구간은 국토부와 적극 협력·올해 타당성 조사 시행>

□ 한편,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이 끝나는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부터 '성남강남 고속국도 종점부'(일원동 일원터널교차로) 사이 연결구간 3.0km에 대해 올해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2028년 민자사업구간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성남강남 고속국도'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해 추진한다.

- '성남강남 고속국도'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서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까지 연결하는 고속국도를 건설하는 사업(9.5km, 왕복 4차로)이다.
- 연결구간이 개통될 경우 서울 동북권~동남권~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이 구축되어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교통편의 증진 등이 예상되며, 영동대로의 교통정체도 현재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상습정체를 해결하고, 동북권과 동남권 간선도로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시켜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북권 8개구 320만 시민들이 발이 되어 경부고속국도 등과 연결되는 중추적인 교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업개요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영동대교 남단) ~ 성북구 석관동(월릉교)
- 규 모 : 왕복 4차로(병렬터널), 연장 10.1km
- 사업기간 : 2019.12.~2028.
- 사업시행자 : 동서울지하도로(주) (대우건설 등 12개사)

□ 추진현황

- '15.08.18 : 민간투자사업 제안 (제안사→서울시)
- '18.07.~'19.07. :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PIMAC)
- '19.12.10 :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9.12.20 : 시의회 동의
- '19.12.26 : 제3자 제안공고
- '20.07.3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대우건설 컨소시엄)
- '22.12.16 :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3.03.27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3.03.현재 :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시행 중

□ 향후 계획

- '23.상. : 실시계획 승인신청
- '23.하 : 공사착공(60개월)

□ 사업 개요

- 위 치 :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 대치우성아파트 교차로(영동대로)
- 규 모 : 왕복 4차로(병렬터널), 연장 2.1km, 연결로 0.88km
- 공사기간 : 2023.~2028.
- 시 공 사 :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등 11개사)

□ 추진 경위

- '20.05.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 추진계획 수립
- '20.10. : 기본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22.04. : 기본설계용역(4공구) 준공
- '22.08. : 공사입찰공고(기본설계제안입찰)
- '22.12. : 기술제안서 접수
- '23.01.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대우건설 컨소시엄)
- '23.03.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서울시고시 제2023-66호)
- '23.03.현재 : 우선 시공분 착공 준비

□ 향후 계획

- '23.11. : 전구간 실시설계 완료
- '23.12.이후 : 본공사 시공(민자사업 구간과 '28년 동시 개통)

※ '29.~'34 : 중랑천 구간(1,2,3공구) 공사시행 예정

□ 위치도

